

은혜와 진리소식

2025년 9월 21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42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하나님께서 사고로 크게 다친
아들에게 놀라운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 가정이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 이 양 순 -

제가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하지 못하고 세상의 일에 몰두하여 분주하게 생활하던 여름날이었습니다. 무덥고 습한 기후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뜨거운 대지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날 연천에서 군 복무를 하며 전역을 6개월 앞두었던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다쳤어요.”

“뭐라고? 어디를 어떻게... 많이 다쳤니?”

아들은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지금 119구급차에 실려 성남에 있는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되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뒤이어 남편이 부대 중대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12.5톤 차량에 치어 골반뼈를 다쳐 걷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옴짝달싹 못 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꿈이길 바랐습니다. 남편의 반대와 시어머니의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한동안 교회에 안 나가고 있었지만 가장 먼저 구역장님에게 전화로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역장님은 안타까워하시며 구역 성도님들과 합심하여 기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목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호세아 6:1)는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주시고 걱정하지 말라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안심이 되었고 가는 내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쉬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보니 아들은 여러 명의 군의관들에게 둘러싸인 채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었습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저는 아들의 다친 부위에 손을 얹고 라파의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저의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권세로써 치료해주세요. 그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소홀히 한 잘못을 회개합니다. 저희 모자에게 긍휼과 사랑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의사들은 수술을 하더라도 아들이 후유증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어려운 일이 겹쳐서 찾아왔습니다. 고향인 충남 금산에서 생활하는 친정 어머니께서 폐암으로 투병중이셨는데, 친정집 가까이에 살면서 어머니를 돌보는 언니로부터 지금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단 아들을 급히 민간 병원으로 옮겨 입원시킨 후에 어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언니에게 들은 대로 어머니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의지하여 겨우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곧 돌아가실 테니 장례를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힘에 겨운 듯 아주 작은 목소리로 천천히 “왜 이제 왔냐”고 하셨습니다. “엄마! 우리 아들이 군부대에서 다쳤어요. 아들보고 오느라고 늦었어. 이제 괜찮으니 걱정말아요.” 어머니는 숨쉬기조차 힘든 중에도 외손자 걱정만 하셨습니다.

“엄마...! 엄마는 이제 곧 예수님을 만날 테니까, 그러면 우리 아들 수술 안 하고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꼭 말씀드려주세요. 그리고 엄마 먼저 천국에 가서 평안히 계세요. 우리도 뒤따라 갈게. 알았죠? 꼭 약속해요.” 어머니는 투병하는 중에

자주 ‘왜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시냐’고 투정하듯 말씀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발인을 한 다음날이 주일이어서 동생과 함께 어머니가 섬기신 고향 마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기이한 환상이 보였습니다. 눈부시게 하얀 옷을 입은 어머니가 천사와 함께 제 앞에 다가와서는 “사랑하는 내 딸아!” 하고 부르더니 저의 아들이 다나왔다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제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서울로 올라와 아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갔습니다. 다음 날이 수술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저희 부부 앞에서 고관절과 엉덩뼈를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을 보던 의사들이 한동안 어안이 빙뻏한 모습으로 계속 사진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한 분이 입을 열어 말하기를, ‘저 위에 계신 분이, 하늘에 있는 높은 분이 다 고쳐주신 것 같다. 신기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의사 선생님이 “수술 안 해도 되겠고, 후유증도 없을 것 같습니다. 뼈가 붙는 과정이 남았지만, 잘 붙을 것 같아요. 아무튼 참 기적같은 일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들은 한 달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병원으로 달려갈 때 목사님이 전해주신 호세아 6장 1절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 교회에 나가지 말라던 남편과 시어머니의 핍박이 멈추었습니다. 고부간의 모든 갈등이 끝이 났습니다. 남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들 또한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난 토요일에 많은 분들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저와 가족의 하루하루가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신실한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니다.



은혜와 진리교회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수원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T. 031-225-3731, 234-3732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광명 : 광명시 소하로 109번길 13-18 T. 02-894-3731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다길 5 T. 02-2632-3731

산본 :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 031-906-3731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 6 (인창동) T. 031-567-3731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양주 : 양주시 평화로 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 12번길 39-11(관동동) T. 055-312-3731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 48 (운서동) T. 032-751-3731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로 41번길 30 T. 042-471-3736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마루들길 168 T. 031-763-3720

남양 : 화성시 시청로 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 1길 26-71 T. 031-8015-3731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420 (보람동) T. 044-862-3732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삼서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 054-772-7867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 39번길 21-18 T. 041-534-3731~2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 2 (쌍계리) T. 063-351-7518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구역공과 제3권 (3단원 : 구원의 하나님)

(제16과)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 본문 : 요한복음 3:1-15
- 요절 :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5)
- 찬송 : 206장(새찬송가 284장), 208장(새찬송가 289장)

전도를 하다 보면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한 번도 국가의 법에 의해 처벌받은 적이 없고 매사에 양심적으로 살아왔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란 국법을 어긴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라는 말씀처럼 자연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새로운 존재가 되어 죄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 사람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현대 생물학은 한 사람이 가진 유전 인자의 절반은 아버지에게서, 나머지 절반은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생김새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며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것도 사람마다 갖고 있는 유전 인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사이의 유전 인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온 인류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육에 속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요 3:6)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부모에게서 한번 태어났을 뿐,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다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사물을 잘 분간하고 육신의 귀로 모든 소리를 잘 듣고 이해할지라도, 영적으로 소경이요 귀머거리가 되어 하늘 나라에 대하여 보거나 들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 일은 쉽게 이해하지만 하늘 나라에 관한 일은 말해 줄지라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만 조용히 예수님을 믿으면 됐지, 왜 믿기 싫다는 사람을 귀찮게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더구나 오늘과 같은 과학문명 시대에 신의 존재를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우리를 한심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반응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고전 2:14)는 말씀과 같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2. 사람은 물과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 즉 종교 지도자로서, 율법 준수에 열심있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자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삽나이까?”고 반문하였습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서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물’이란 ‘물세례’를 뜻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근거로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벧전 1:23)는 말씀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엡 5:26)는 말씀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거듭나게 하시는 실질적인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한 상태의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배척하기 때문입니다(롬 1:18,25).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을 변화시키려면 죄인의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청종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행 16:14). 죄인의 심령을 열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딤후 3:5).

3. 거듭난 사람에게는 새로운 변화와 특권이 따릅니다.

거듭나는 것은 서서히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니고 인간 본성의 즉각적인 변화로서, 우리는 거듭남의 순간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임의로 부는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로써’ 자신의 거듭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분명한 것으로, 그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시인하고(롬 10:9~10, 요일 5:10), 하나님을 사랑하며(요일 5:2),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벧전 2:2), 형제를 사랑하며(요일 4:7), 불신 이웃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며(고후 5:14),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요일 5:4~5).

우리는 위에 인용한 성경 구절과 자신의 상태를 비교해 보아 스스로 거듭났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요 1:12),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며(고전 2:10~12), 셋째로 죄악에서 지켜 주시며(요일 5:18), 넷째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함으로 받아 누리게 되며(마 7:11), 다섯째로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가 됩니다(롬 8:16~17).

이러한 변화와 특권은 그 하나 하나가 다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이전에 육의 사람일 적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으며(엡 2:1)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엡 2:3). 그러나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고후 5:17),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에 속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뿐더러 거듭난 자답게 변화된 삶을 살며, 받은바 하나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